

## 이재명號 민주당 지도부 ‘쌀값 폭락 당론 채택하나’

국내 쌀값 45년만에 최대 하락 폭 기록 ‘심각’  
 전당대회서 대표·최고위원들 쌀값 해결 약속  
 전남지역 농민, 벼 논 갈아엎으며 식발 시위

국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면서 전남지역 농민들이 여름 내 땀흘려 키운 벼를 갈아엎고 식발투쟁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쌀값 폭락 사태 해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쌀값 폭락 문제 해결 등 민생 현안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남 당 대표에 선출된 이 대표는 지난 23일 전남 강진에서 열린 순회경선에서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시장격리 당연히 해야 하고 전 세계가 하는 것처럼 쌀값, 주시가격은 지지돼야 한다”며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다. 반드시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순회경선에서 정청래·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도 쌀 직불금 문제 개선, 쌀값 보장 예산 확보 등 적절한 쌀값 유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순회경선 행사장 입구에서는 전남지역 농민

들이 쌀값 대책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이러 농민들은 지난 26일 오전 영암군 군서면에서 낱알이 익어가는 벼는 2970㎡(900여 평)를 갈아엎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속 전남지역 11개 읍·면 지회장들이 식발시위를 했다.

국내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kg이 4만 252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5630원에 비해 23.5%가 급락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쌀 재고량은 48만 6000t으로 전년도 28만t보다 무려 70% 가량 늘어나, 올해 햅쌀이 수확되면 가격 추가 폭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을 비롯한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쌀값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고, 지난 16일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중 128명이 연명한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를 압박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며 “쌀 수급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 재고미로 전가돼 있는 작금의 사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상 엄연히 정부의 직

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나주·화순)은 “쌀값 폭락으로 전남은 5000억원 이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쌀값은 생존의 문제인 만큼

신임 지도부가 쌀값 문제 해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추석 앞둔 양동시장 추석을 10여일 앞둔 29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 순천시, ‘추석’ 당일 주암댐 고립묘지 성묘객 수송 육군 제11공수 65대대·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주암댐 고립묘지 성묘객 수송 지원을 ‘추석’당일인 오는 9월 10일 하루 동안 실시한다.

주암본댐과 주암조절지댐(상사)에는 약 610여 기의 고립묘지가 있다. 시는 추석 당일 성묘객을 60~1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송은 동력선과 보트를 이용한다.

시는 육군 제11공수 65대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주암본댐은 주암면 대광리 선착장, 주암조절지

댐은 상사면 조절지댐 선착장에서 수송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묘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9월 2일까지 생태환경과(061-749-5779), 주암면행정복지센터(061-749-8026), 상사면행정복지센터(061-749-8157)에 기한을 지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생태환경과 관계자는 “성묘객들이 편안하게 성묘할 수 있도록 수송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코로나19 방역 강화’...광주 초·중·고 2학기 정상등교

#### 확산 따른 원격수업은 학교재량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일선 초·중·고의 2학기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광주시교육청은 2학기에도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대면수업을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은 각급 학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 필수 기능은 1학기처럼 유지된다. 다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학교는 교육청 등과 사전 협의 후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수학여행·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과 학생·교원의 안전을 고려해 사전에 프로그램 안전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부모 동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 학교나 초등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학사와 연계해 정상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온라인 콘텐츠 제공’ ‘재택학습용 과제제공’ 등 대체학습을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촘촘한 방역지침을 세워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먼저 2학기

정상 등교에 따라 학교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학교별 개학 1주 전부터 개학 후 2주, 총 3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 기간으로 운영한다.

모든 학교에는 방역물품이 기준량 이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방역 인력과 가정내에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속지원 검사 도구도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과학습 보충 프로그램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